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내 작은 입술로 민족 75%를 그리스도인으로"

'98비전 2020운동 다음 주일 발대식 - 오늘은 연속기도회 신청서 작성

다음 주일에 비전 2020운동이 시작된다.

그간 비전 2000운동으로 불렸던 이 운동은 올해부터 비전 2020운동으로 개칭되었다.

비전 2020 운동이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함으로써 2020년까지 전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75%인 3,7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군선교를 통해 장병들로 하여금 국토 방위의 책임을 완수케 하고 제대 후에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모범 시민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복음화를 앞당기자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우리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 전이 되면 이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교회 설립일을 7주 앞두고 해마다 50일 간 가지는 우리 교회의 이 행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며 전도의 결실을 위한 기도운동을 겸하여 벌이고 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10월 4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발대식을 갖고 50일 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올해 비전 2020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군선교와 교도소선교, 학원선교, 장애인선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주일 예배 후에 가지던 교구별·기관별 노방전도 대신 주말에 교구별 동반전도를 실시함으로써 전도뿐 아니라 환경보호운동과 교구별 친교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연속기도회는 2층 철야기도회 주관부서를 정하여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비전 2020운동 기간 중 2층 예배실은 특별기도실로 개



방된다.

'98비전 2020운동 기간 중 10월 26일(월) - 31일(토)까지 새벽기도회 시간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 전도특강을 진행하며 11월 2일(월) - 21일(토)까지 20일 간은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기간 중에는 각 부서별, 기관별 잃은 양 찾기 운동과 배가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일에 시작되는 '98 비전 2020운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기간

10월 4일(주일) - 11월 22일(주일), 50일간

▶표어

내 작은 입술로 민족 75%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제성구 및 찬송

· 주제 성구 /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장 3절)

· 주제 찬송 /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행동강령

- ① 기도하자
- ② 복음 전하자
- ③ 잃은 양을 찾자

▶목표

· 기도 - 시간을 정하여 하루 두 번씩 드리는 다짐기도와 40일 연속기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한다.

· 전도 - 전교인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가족초청전도, 친척·이웃초청전도, 1인 1명 전도, 산행을 통한 노방전도실시,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생활전도 실행).

· 각 기관 및 선교회의 잃은 양 찾기

· 교구 및 다락방 배가운동 전개

· 군에 가 있는 교인 자녀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기도제목

1. 가족과 이웃 전도로 민족 75%를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2. 군선교, 교도소선교, 학원선교, 장애인선교에 불이 붙게 하소서
3.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주요행사

- 전도훈련 / 10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 10월 26일(월) - 31일(토) 오전 5시 30분
- 특별새벽기도회 / 11월 2일(월) - 21일(토) 오전 5시 - 6시(강사: 이종윤 목사)
- 연속기도회 / 10월 7일(수) - 11월 21일(토) 주일 제외한 24시간, 2층예배실
- 심야기도회 / 기간 중 금요일오후 9시 - 10시 30분
- 개인전도(한 사람 책임전도) / 태신자 선정 및 전도
- 노방전도, 교구별 동반전도, 전도회 및 교회학교별 전도 / 기관별·교구별·교회학교별로 진행
- 잃은 양 찾기 운동
- 교구전도교육 / 교구별로 지도교역자가 담당
- 군복음화 전도를 위한 문서 발송 및 군대 평신도선교사 파송

지상감정

개역개정판 출간에 가는 기대

이종윤 목사

■...이 글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되는 '성서한국' 1998년 가을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

I. 왜 번역을 새로 해야 하는가?

이 세상 많은 서적 중 성경만큼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된 책은 없다. 12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지구의 곳곳에서 다른 발음으로 모든 사람의 귀에 익숙히 들려지도록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 한국인에게 복음을 들려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961년판 개역성경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언어나 표현양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개역성경이 완전하고 무오한 완역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번역작업이란 본래 해석학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또는 번역자의 해석 목적에 따라 또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대한성서공회는 이와 같은 번역의 의미를 인지하고 지난 15년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객관적이고 평이한 문장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로 꾸준히 개정 작업을 해 왔다.

이제 개역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공헌해 온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개정 개역판이 완벽한 번역이라는 말은 아니다. 번역이 잘 되었다면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잘 되었다는 말인가. 신세대를 위해 잘 되었다면 노년층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읽기에 좋은 것이 강단에서 읽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헌신된 신자에게 친근미가 있는 번역이 새로 믿는 이에게는 멀리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여러 종류로 해야 하고 목적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판과 같이 우리 나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읽어야 하고 심지어 불신자도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 해낸다는 것은 번역의 기술이나 정성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임으로 이 작업이야말로 어렵고도 힘들다 할 것이다. 물론 번역자들이나 감수자들이 성경의 도우심을 구했었고 점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번역과 감수에 착수함으로 오늘의 개역개정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믿고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라 전제 하에서 그래도 현재로는 최선을 다한 열매로 알고 몇 군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서 제로 썸(Zero Sum) 게임을 하듯 전체를 버리거나 비판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판으로 번역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개역개정판 새 번역 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II. 개역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1. 필자에게는 어느 사본을 원문으로 삼고 번역을 하였는가 가장 큰 질문이었다. 개역개정판은 개역성경이 사용한 원본을 존중하면서 오역이 분명한 것은 다시 번역을 하고 한자를 포함하여 개역의 언어와 표현이 현대인에게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은 수정을 했다.

특히 신약은 사본연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최신판 회람어 성경(GNT UBS 4판)을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BHS)에서 번역을 했다고 한다. 꽤 질마다 원문대역을 했는지는 모르나 마태복음 5장 28절, 6장 34절, 마가복음 8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등의 번역은 참으로 잘 된 것으로 본다. 특히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라는 구절은 개정판의 "인정 되었으니"라는 표현보다 신학적으로도 바른 번역이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 했던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원문과 문법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신학적 의미가 퇴색해진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들어 못내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개역개정판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고 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계셨느니라'고 한 것은 '모든 것 이전에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에서는 '계시니라' 즉 과거에 계시했다는 것과 앞으로 계시 것이라는 시제가 다 포함된 표현이었다. 영어성경들은 모두가 was로 번역했지만 그것이 영어의 한계다. *have*이라는 동사는 *exist*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다. 과거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 것이다. 행동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헬라어의 별미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인데, 미완료형을 과거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헬라어엔 영어나 우리말처럼 동

사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다. 과거로 끝나는 punctuation과 동작의 계속을 가리키는 linear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개역성경의 번역이 아주 잘된 것으로 보고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창 1:1도 개역성경 그대로가 좋을 것이다.

2. 현대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부분과 옛날식 표기를 바로잡아 의미 전달을 바로 하고 읽는데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은 개역개정판의 최대장점이라 할 것이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번역이 독일어 체계를 세웠고 한글성경 번역이 우리말 보급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그러나 수정 없이 50여 년 가깝게 사용해 온 개역성경에는 이 시대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이 많아 박물관에 진열된 낱말을 찾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던 것도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은 과감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버릴 것과 바꿀 것을 슬기롭게 취사선택한 것은 변화를 꺼려하는 교회를 위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가라사대'를 '이르시되'로, '어디 계시뇨'는 '어디 계시냐'로 한 것과 사투리를 표준어로 고친 것 그리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말들을 좀 더 부드럽고 친근감을 주는 말로 바꾼 것은 번역의 큰 발전이라 할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전통과 신앙정서를 많이 고려했다는 성서공회측의 배려는 이 개역개정판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공인 성경으로 읽혀질 이유가 될 것이다.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여호와' '인자'와 같은 말들에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본다. 너무 급히 변화를 주는 것은 도리어 주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개역개정판이 최종 판이 아닐 것이므로 성서공회는 항상 교회를 의식하고 번역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공동번역에서 '하느님' 칭호를 사용한 것이나 표준 새번역이 벽두부터 부딪힘을 받게 된 원인을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개역개정판은 이 고개를 슬기롭게 넘긴 것 같아 참으로 경하해 마지 않는다.

4. 번역상 필요한 번역원칙과 기술을 조화 있게 활용한 것이 개역개정판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다.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하는 교회 중 하나라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주



한국 교회 일치운동이
성경으로 이루어지며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번역이 이루어져
통일된 조국의
언어 문제는 물론
복음 선포에도
유익을 주기 위한
밀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드립니다. 저도 잘 귀국하고, 주님께서 건
강을 주셔서 감사하게 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모두의 얼굴이 떠올리면서
사랑의 빛을 지고 왔는데 일일이 편지를 드리
지 못하고 <순례자> 지면을 통해 이렇게나마
문안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국 땅에서 온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힘
든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일을 찾아도
와 주시던 모습 아직 선합니다. 생각하면 서
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이 영화 필
름처럼 돌아가면서 회상되어 다시 서로 만나
뵈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귀국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설교테이프를 매일 듣고 있습니
다. 이종윤 목사님의 목소리와 찬양대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서울교회 하나님의 전이 그림습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서 출석할 교회를 정하지 못했습
니다. 교회를 바르게 정하고 서울에서 하던 대
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
녕히 계십시오.

중국에서 전금녀

말에 어른도 아이도 각자 두터운 친구와 성경과
찬송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는 교인을 가진 나라
나 교회가 세계 몇 곳이나 될까.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 했던가. 한국교회는 성
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서양의
어느 교회들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가도 개업을 해도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
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한국교회 전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유산이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가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개
역개정판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 성서공회로 하
금 개정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개정작업을
한 후 감수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
쳐 햇빛을 보게 한 것은 한국 교회가 맺은 자랑
스런 열매라 할 수 있다.

좋은 역본은 본문이 원본에 가장 가까워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텍스트를 찾아야 하고
정확한 번역을 해야 한다. 원본에서 얼마나 조심
스럽게 정확하게 원저자의 사상 의도 감정을 파
악하고 전달했는지가 문제다. 역자의 신앙과 느
낌 또는 확신이 개입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을 가
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자적 번역과 문
법을 따라 우리말 표현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 번
역문의 느낌 없이 독자가 마치 원문을 읽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
려면 번역자는 원문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그
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만족스럽게 정확히 해야
한다. 숙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저자의 문화적 역
사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 동시에 현대 사회가 통
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법적 구조도 알아야 한다.
번역 시 생각할 또 한가지는 표현의 명료성이다.
한글의 분명한 지식 없이 원문을 바로 번역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역개정판은 한국교회사에 또
하나의 큰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역판 번
역 자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단순 직설 운
율을 갖춘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판은 이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언어를 순화시키고 의미

를 명료케 하고 문체를 세련되게 한 흔적을 도처
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I. 개역개정판 성경출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1. 한국 교회 일치운동이 성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전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국교회가 성장과 비례하여 교단 분열이라는 뼈
아픈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러나 교단은 갈라
졌으나 아직도 대부분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여러 교단이
연합하여 이런 개역 개정판 성경이 한국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일에 그리
고 말씀의 확장으로 민족복음화에 크게 기여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 머지 않은 장래에 남과 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번역이 이루어져 통일된 조국의 언어 문
제는 물론 복음 선포에도 유익을 주기 위한 밀거
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역 개정판은 한글
세대에 접근하듯 현대인들의 상용어에 접근한
흔적이 많기 때문에 다음 번역에도 큰 용기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 이번 번역과 감수에 참여한 이들의 학문적
신앙적 권위와 용기가 더 좋은 번역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보고 저들은 물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후계자 양성에 한국교회는 이제
야말로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
하고 협력할 것을 기대해 본다.

좋은 번역은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력 있는 학문적 자질을 갖추고 신앙적 자세가
바로 세워진 이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번 대사를 치르면서 이같은 바램을 절실히 느꼈
을 줄 안다. 다시 한번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 이 성서를 읽고 듣는 이들과 지키어 행하는 이
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순례자 컬럼

전체와 미래를 보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안
목이 있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 목
적 위해 사실로 조작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뿐이기 때문
에 누구나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성
과 정당성이 있다.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려면 두가지 전체
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체를 보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의미를 모색할 수 있어
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먼 훗
날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 자칫하면 나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의 손
익계산에 급급할 수 있다. 사회악이란 나 때
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내게 약간의 고통이 오더라도 이제는 사회
전체를 위해 양보하고 협조하여 객관적 가치
를 창출해내도록 하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지금까지 접수된 것(9월 26일 현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9	여성의류 17점, 남성의류 11점	신순우·김복순(4교구)
10	여성의류 6점, 여행용 가방·핸드백 외 7점	전완순(2교구)
11	여성의류 14점, 벽걸이시계 3점	김영례(4교구)
12	참깨 70Kg	조철기(4교구)
13	여성의류 12점	무명
14	고추 1700근(판매중)	4교구
15	냉면 60박스(판매중)	노영숙(1교구)
16	참쌀, 현미, 흑미 등 곡류, 까나리 액젓(판매중)	4교구

건축계약 임박

- 시공회사 선정을 위해 기도들 -

건축위원회(위원장 임광식 장로)는 온교회 성도들의 염원인 새 예배당을 건축할 시공회사 선정을 위해 기도들 요청하고 있다.

- 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회사
- ② 정성과 힘을 다할 회사
- ③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회사
- ④ 성전 건축의 경험이 있는 회사
- ⑤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
- ⑥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한 회사
- ⑦ 교회가 제시한 지불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벽돌로 전을 쌓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쌓을 것이며 돈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새 예배당을 세우려 한다. 건축회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는 힘써 기도하고 헌신을 보여야겠다.

결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는 힘써 기도하고 헌신을 보여야겠다.

교역자 산상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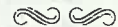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의불씨가 되고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경기도 일명에 위치한 순례자의 집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우리 교회 건축 임박을 위한 기도를 위해 하루 한끼씩 금식하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예 전념했다.

이번 주에는 심방 또는 성경대학이 마치는 대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며 10월 4일(주일) 비전2020운동 발대식 전까지 기도의 불을 계속 붙여 온 교회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례 기도예 힘쓰던 중 성령의 체험을 한 것처럼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비전2020운동,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는 일 그리고 국가적 난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9월 새가족환영회



* 9월의 새가족 *

남윤호 이강진 이한나 서경대 박민서
김용훈 서순자 황희철 현천두 시원순
김복순 유종숙 이상재 정종규 윤지호
전미운 박경숙 남강민 허 경 하성주
우상태 방순자 우스랑 우보라 우고은
김성의 박정희 조수영 이우상 전복례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8일(월) 저녁 한·일(韓·日)교회성장세미나 개최 특강을 제주도 아가봉선교회에서 연다. 29일(화) 오후 2시에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발제강연을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3회 총회는 유의웅 목사, 이규호 목사를 각각 정부회장으로 선출하고 4일간의 회무처리를 은혜롭게 마치고 25일(금) 폐회했다.

◇ 김상철 장로(4교구, 임마누엘찬양대장)은 9월 30일(수)부터 10월 2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 2회 태평양아시아국제총회에 참석한다.

◇ 오늘 점심식사는 노송성·이영옥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② 9월 28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노정선 교수)
- ② 10월 12일 - 제 1교시 / 느헤미야서 연구(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국방의 위기와 안보(송영대 회장)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3. 제 14학기 목회신학세미나와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